

5분 자유발언(요지)

엄경석 의원

저는 피감 기관장이신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서는 민주당 중구 성동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권한 '대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의 피감 기관장이신 정원오 구청장님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일까요?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지역 구의원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감 기관장이 본인이 집행한 행정사무감사를 면밀하게 진행하는 구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지금 계신 9분의 민주당 구의원님들께서는 피감기관인 성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올바르게 진행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그 감사 결과에 대해 우리 성동구민들께서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 14명의 성동구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성동구민을 대신하여 행정기관을 잘 감시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라는 의미로 의회로 보내진 것입니다.

자고로 '묘서동처'라 했습니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원오 구청장님이 현재 대행이신 당원협의회 위원장직을 겸직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근 구민들 사이에서 정원오 구청장님이 내년 총선에 나오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구청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구청장님의 진심 어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복중 의원

얼마 전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고위직으로 내정되었다가 서울시의 부적합 판정으로 채용이 불발된 모 인사가 지난 4월 24일자로 성동구청 구정연구기획단의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인 정책개발 전문관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순간 제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전직 구의원을 했던 분이, 나아가 도시관리공단 고위직으로 내정받았던 분이, 7급 상당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젊은 청년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임용권자도, 입사하신 전직 구의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일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대상자의 부분 근무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써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의 업무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자리이지만 그 채용과정은 공개적이며, 공정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채용목적에 부합하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하더라도 금번 인사는 임용권자의 측근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우리 1,300여 명의 성동구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상당 기간 공시생으로 청춘을 불살랐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획득하고는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입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동구에도 그나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공개경쟁 없이 다양한 지인찬스, 보은찬스를 이용해 상당히 높은 직급으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구민들께서 아신다면 그리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인사의 문제점은 전직 구의원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어느 국장, 어느 과장이 편하게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까?

또한 그 분이 일하는 부서는 부구청장 직속의 구정연구기획단이며 정책개발 연구라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과연 구정연구기획단은 어떠한 전문적 업무를 하는 곳이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지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법의 빈틈을 이용했기 때문에 십 년 가까이 진행된 모든 인사에 법적 하지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인사야말로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니만큼 어느 정도 보은인사,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극히 공정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를 좌우한다면 바꿔말해 만사(萬事)는 인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내 사람, 네 사람 따지다 보면 실패한 인사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망사(亡事)입니다.

중국의 인재학에 '인재는 데려다 쓰는 것이 아니라, 찾아 모셔, 따르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측근의 지속적인 채용과 퇴직자의 중용을 보며 이제는 더이상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동구 공무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질문(요지)

박영희 의원

본 의원은 동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에 대한 성동구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정동 주민의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하도로 노선을 주택 지역에 없는 송정 빗물펌프장 인근으로 변경하고, 군자방향 진출입로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지하 발파 등으로 인한 불안과 매연 그리고 소음공해로부터 어느 정도 안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100% 정화능력을 갖춘 환기소를 설치하되 아직은 기술로 부족하다면 환기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형 공사에 따른 건물 안전을 위협받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공사장 주변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상세히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지역, 지하 60m 대 심도 통과로 발생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부터 서울시에 군자진출구 북측 이전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하여 구민과 함께

검토하기 위해 4월 14일, 5월 25일 2차례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기구 설치, 통과노선 및 출입구 위치 변경, 사유지 통과에 따른 주민불편 등 송정동 주민들이 주신 의견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고 서울시 주무부서인 도로계획과에 직접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기존 동부간선도로로 인해 주민 여러분께서 오랜기간 불편을 겪고 계신 점을 감안하여 더 이상의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보다 긴밀한 협의를 거쳐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의원

먼저 한양대 기숙사 조성에 따른 질문입니다.

첫째, 한양대기숙사 공사뿐 아니라 전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심도 있는 결정과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안을 철저히 파악하고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민원접수 방법을 기존의 응답소, 유선민원 이외에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시고 셋째, 대형 공사 전에는 주민공청회 등을 다수 개최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도 세심히 마련하는 등 넷째, 한양대 기숙사 공사 중 타워크레

인 작업이나 대형차량 진출입처럼 주민 안전과 관련된 공사에는 반드시 언제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주변 통제에 철저히 기해주시고 예외도, 예고도 없는 재난에 지나칠 정도의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이제라도 한양대기숙사 민원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리에 주민의 대변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 후에는 지역주민과 다방면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번호 1-9인 한전부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관리번호 5-19 중량물재생센터 현대화 및 주민친화 환경조성이 담보상태인데 지역 주민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작은 도서관의 확충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향후 2년 내 국립의 작은 도서관 확충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사립 작은 도서관 조성 시 구유재산 무상 사용이 가능한지, 그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지, 금년도 신간도서 구입은 몇 권이나 계획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 구에 제출된 주요 민원 사항은 13건이며 한양대측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였으나, 주민소유의 토지매입 요청, 대체 도로 확보요청, 건축물 전체 개보수 요청 등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호수를 2인 이상 상시

배치하여 타워크레인이 도로 상공에서 작업할 때 보행자 및 주민차량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차량이 질서있게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안전지도를 하고 있으며 소음·분진 등의 민원 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관계자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장동 한전부지로 인해 오랜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및 지역 필요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건의사항인 파크골프장이 2023년 6월 서울시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금년 10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중량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편익과 구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이전 및 우리 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주민들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하여 책마루를 비롯한 북카페, 스마트무인도서관, 스마트문화편의점, 작은도서관 확충,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등 관내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